

# WHO 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 활동계획과 정책과제

*Activities of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Under the WHO's  
Environmental Health Forum*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환경보건포럼에 속해 있는 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는 환경보건포럼에서 운영하는 7개의 주제의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중 하나이다. 건강영향평가 TWG에는 현재 8개국 10개 기관과 7명의 국제 파트너들이 건강영향평가 작업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2010년 우리나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작업반의 첫 번째 의장기관으로 선출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작업그룹에서는 2010년 4월 work plan 초안을 완성하여 WHO/UNEP에 제출하였고, 7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발표되었고, 승인되었다. 건강영향평가 TWG에서 개발한 Work plan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건강영향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 건강영향평가를 다양한 부문에서 도입하도록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관련 정보교류, 관련 환경보건TWG와의 교류,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역량강화 등이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 1. 서론

아시아에서는 매년 약6.6백만명이 환경보건 관련 위협요인으로 인해 사망하며, 이 통계는 서태평양지역의 총 사망의 사분의 일에 해당한다. 2004년 마닐라에서 환경보건문제관련 고위급회의가 개최되면서 남동 및 동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환경보건회의가 시작되었고, 이 회의에서 장관급 환경보건포럼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2007년 8월 태국의 방콕에서 첫 번째 환경보건장관포럼이 개최되었고, 2010년 7월 한국의

제주도에서 제2차 환경보건장관포럼이 개최되었다. 각각의 회의에서는 지역포럼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고, 추진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관련된 기관에서 액션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왔다. 환경보건포럼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환경으로 인한 질병부담 등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직되었고 국제기구로는 WHO와 UNEP<sup>1)</sup>가 참여하고 있다. 첫 번째 환경보건포럼 회의에는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 이하 TWG)이 구성되었었다. 공기질(Air quality), 물

공급 및 위생관리(Water supply, hygiene, and sanitation), 고형 및 위험폐기물(Solid and hazardous waste), 독성화학물질 및 위험물질(Toxic chemicals and hazardous substances), 기후변화, 오존층감소 및 생태계변화(Climatic change, ozone depletion and ecosystem changes), 환경보건응급상황 관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environmental health emergencies) 등의 TWG가 구성되어 3년간의 회기 동안 각 주제별 목표와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sup>2)</sup> 2010년 두 번째 포럼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에 대한 TWG를 추가하기로 승인하였다. 건강영향평가 TWG에는 현재 8개국 10개 기관(lead institution)과 7명의 국제 파트너들이 건강영향평가 TWG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영향평가 TWG의 첫 번째 의장기관으로 선출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의 환경보건포럼에 속해 있는 건강영향평가 TWG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하였다.

### 1) 환경보건포럼의 경과

첫 번째 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채택된 방콕

선언문은 남동아시아 지역의 환경보건에 대한 국가고위관계자의 책임을 환기시키며 국제적인 파트너로서 협력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방 환경보건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일은 지역 및 국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보건문제는 어린이, 노인,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문이기도 하다. 이 방콕현장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개발을 증진하는데 비전을 두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노력을 통합하는 국가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방콕선언문의 목적은 환경보건 관련 부처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을 개선하여 통합적인 환경과 보건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언내용의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빈곤의 감소, 유엔천년개발목표(MDG)<sup>3)</sup> 관련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등 관련된 목적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달성한다.
- 협력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참여 국가들의 통합적인 환경보건관리를 제도화한다.
- 국가가 환경과 건강의 위험요인을 평가하

1)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2) <http://www.environment-health.asia/>

3)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Reduce Child Mortality, Improve Maternal Health,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고, 비용효과적인 국가 환경보건액션플랜을 개발하여 관계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방콕에서의 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는 건강영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를 대기질(Air quality), 상수도위생(Water supply, hygiene, and sanitation), 토양 및 위해폐기물(Solid and hazardous waste), 유해화학물질(Toxic chemicals and hazardous substances),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ecosystem changes), 환경보건응급상황(Contin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environmental health emergencies) 등으로 선정하였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의 지역 환경보건포럼의 역할은 환경보건관련 활동의 가이드와 방향을 제공하고 핵심적인 중점적 사업을 제시하며 기술적 지원을 한다. 또한 현장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을 검토하고 공조 또는 지원한다. 관련된 지역사무국과 자문위원회, Thematic Working Groups을 두고 있다. 환경보건포럼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관계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비용적인 지원, 정보, 전문적 지원 등을 협력하도록 권고하였고, 자원의 사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국의 정부에서 이 방콕 환경포럼현장을 수용하여 적극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환경보건장관포럼 방콕현장에 의거하여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활동을 추진하였고, 2010년 7월 한국의 제주에서 제2차 환경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표단 의장과 환경부 및 보건부 장관 등이 참석하였고, 전문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2010~2013년에 새로운 지역적 최우선과제로 건강영향평가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TWG는 (1) 대기질 관리, (2) 상수도 위생, (3) 토양 및 위해폐기물, (4) 유해화학물질, (5) 기후변화 및 오존층파괴, (6) 환경보건 응급상황, (7) 건강영향평가 등 7개가 되었다.

제2차 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였다.<sup>4)</sup> 이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간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적 발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첫째, 각 국가는 국가환경보건 행동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계획의 수립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둘째, 환경·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훈련, 모범사례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자 지역 내 환경·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셋째, 대기질관리, 상수도 위생,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 환경보건 응급상황, 건강영향평가와 같은 환경보건 이슈에 대해 전문가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준 등을 개발·권고

4)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도자료, 제2회 환경보건장관포럼: 아시아 환경보건역량 강화 의지 담은 「제주선언문」 채택, 2010.7.15.

하거나 관련 정보를 생산·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하며, 넷째,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멤버십 확대, 안정적인 자원 조성 등 포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될 전담조직(Task Force)의 설립 추진 등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보건문제의 우선순위의 범위는 질병과 사망의 부담에 영향을 많이 주는 환경적 요인과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최근의 위험요인, 취약한 인구집단, 노화와 환경훼손으로 인해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관리체계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된다.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부문을 고려한 계획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적 협력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역량향양, 정보확산, 교육, 훈련, 연구 등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 2) 건강영향평가 Thematic Working Group 작업의 경과

### (1) 작업회의의 경과

2010년 3월 9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표 1. 환경보건장관포럼의 추진현황

구분	제1차 회의	제2차 회의
개최시기	2007.8.8~8.9	2010. 7. 14~16
개최장소	태국 방콕	대한민국, 제주
포럼의 성과	방콕선언문 채택	제주선언문 채택
주요 결과 (선언문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빈곤의 감소, 유엔천년개발목표(MDG)관련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 등 관련된 목적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달성함.</li> <li>- 협력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참여국가들의 통합적인 환경보건관리를 제도화함.</li> <li>- 국가가 환경과 건강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비용효과적인 국가 환경보건액션플랜을 개발하여 관계자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함.</li> <li>- UNEP 및 WHO가 지역포럼 및 그 보조기관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사무국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함.</li> <li>- 지역의 주제별 작업반이 6개 분야에 대해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의한 추진계획을 개발하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 각 국가가 국가환경보건행동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계획의 수립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li> <li>- 둘째, 환경·보건 관리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훈련, 모범사례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자 지역 내 환경·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수단을 강구함.</li> <li>- 셋째, 대기질관리, 상수도 위생,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 환경보건 응급상황, 건강영향평가와 같은 환경보건 이슈에 대해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준 등을 개발·권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생산·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함.</li> <li>- 넷째,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멤버십 확대, 안정적인 자원 조성 등 포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될 전담조직(Task Force)의 설립을 추진함.</li> </ul>

사무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포럼의 운영관련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TWG on HIA)를 조직하였다.<sup>5)</sup>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강영향평가제도화방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leading institution 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장기관(chair)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 4월 work plan 초안을 완성하여 WHO/UNEP에 제출하였고, 제2차환경보건장관포럼에서 발표되었다.

## (2) Work Plan의 개요

건강영향평가 TWG에서 개발한 Work plan은 아시아 지역에서 건강영향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 건강영향평가를 다양한 부문에서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적용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영향평가에서 도출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특히 TWG의 활동을 통해서 각 국가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분석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건강영향평가의 실행, 가이드라인, 도구, 다양한 정책사업의 건강효과에 대한 근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한다.
- 이 지역에서 건강영향평가가 각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부분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및 관계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역량강화, 정보확산의 증진, 초국가적인 협력과제개발 등을 추진한다.

건강영향평가 TWG의 회원국가와 파트너국가들은 2010년에서 2012년의 기간동안 수행할 활동의 목록을 만들었고, 목록별 참여기관과 연차별 활동계획을 마련하였다. 활동내용은 첫째,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으로서 기존 관련 자료의 수집(가이드라인, 도구, 사업관련 정보) 및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 둘째, 지역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한 부분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법제도자료의 수집 및 관련된 권고), 셋째, 건강영향평가 및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기술지원 워크숍 개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수집, 다른 TWG와의 교류 및 협동워크숍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활동의 산출로서 기대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영향평가의 실행과 관련된 정보를 개발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한다.
-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법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권고를 제공한다.
-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자료를 수집하고, 테크니컬 워크숍의 리포트를 작성한다.

5) 회원국 8개국(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중국, 한국) 10개 기관의 건강영향평가 담당자, 국제 파트너 3명(일본, 호주, 뉴질랜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UNEP의 관계자 4명

표 2. 건강영향평가 TWG의 주요 활동계획(2010~2012년)

구분	주요 내용	기대효과
건강영향평가 실행, 가이드라인, 도구, 근거 관련 지식과 정보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하는 건강영향평가 실행관련 자료, 전문가 정보 등</li> <li>- TWG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유</li> <li>- 다른 주제의 TWG와 정보공유 및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통합적 제공</li> <li>- 웹사이트를 통한 TWG정보공유</li> </ul>
건강영향평가를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의 부분으로 통합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 자료의 수집</li> <li>- 제도화 관련 권고안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영향평가 법제도 정보의 통합적 제공</li> <li>- 건강영향평가제도 관련 권고사항 제공</li> </ul>
건강영향평가 관계자의 기술과 지식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료의 수집</li> <li>- 지역의 technical workshop 실시</li> <li>- 다른 주제의 TWG와 협력기획 및 공동 workshop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제공</li> <li>- 협동 technical workshop을 통한 지식공유 및 확산</li> </ul>

자료: Thematic Working Group on Health Impact Assessment, Workplan, Regional Forum on Environment and Health in Southeast and East Asian countries, 2010.

TWG의 목표와 활동을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뉴질랜드의 University of Otago에서 제2차 건강영향평가 TWG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건강영향평가 국제학술대회의 기간에 개최되었고, 동남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 경험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활동 스케줄이 마련되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원국가의 건강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6개월마다 수집한다.
- 다른 TWG<sup>6)</sup> 단체와 활동교류 및 협력(협동 워크숍 등)을 추진한다.

- 2012년 초까지 WHO 측에 활동보고를 제출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태평양지역 국가들 대부분은 건강영향평가가 아직 시작단계이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는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현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건강영향평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은 보다 많은 근거와 경험이 필요하고, 적절한 권고가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6) Air quality, Water supply, hygiene and sanitation, Solid and hazardous waste, Toxic chemicals and hazardous substances,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nd ecosystem changes, and Contingency planning,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environmental health emergencies

## 2. 결론 및 정책제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포럼의 기본적인 취지는 환경이 인간의 건강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보건문제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노인, 어린이 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건강영향과 관련된 환경적 문제중 가장 우선적인 이슈는 깨끗한 공기의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수관리,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적으로나 보건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과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제, 기후변화에 대하여 환경적으로나 보건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 환경보건적인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 환경위험이나 기타 환경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과제 등이다.

건강영향평가 TWG는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다른 환경보건분야와 공통되는 주제와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술의 축적과 법제도화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정보교류와 국제워크숍활동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건강영향평가 분야가 고유의 특성화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기술지원, 교육훈련,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정보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발전과 환경문제, 인간의 건강문제등이 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건강영향평가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그 건강영향평가의 경험이 새로운 모범사례로서 국제적인 건강영향평가 지식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